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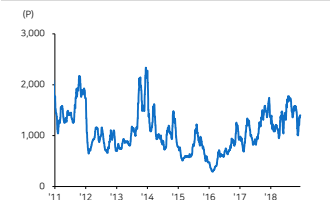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059.0	16.4	128,000	-3.8	-6.6	0.0	33.4	89.2	42.8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115.6	20.6	375,500	0.0	-2.8	-2.3	-1.4	5.1	4.2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491.6	4.9	24,150	1.0	5.9	-29.9	-57.6	2.3	2.0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819.6	7.3	41,600	0.4	-0.4	-32.4	-50.8	2.6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4,819.5	17.7	7,650	-0.8	-0.9	-2.5	18.3	48.3	23.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650.4	10.9	34,050	-1.6	-3.8	1.8	145.0	11.1	13.6	1.0	1.0	10.6	6.2
현대미포조선	2,476.4	11.2	62,000	-1.6	12.7	27.3	57.6	13.4	9.7	0.5	0.5	3.6	4.8
한진중공업	195.1	5.6	1,840	-0.3	5.1	-29.4	-44.4	37.0	9.2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07.7	21.3	99,700	6.4	4.9	-16.9	83.3	17.6	17.1	2.4	2.2	14.6	13.3
두산반도체	3,223.0	27.7	32,150	-2.3	-12.3	-16.6	-9.0	11.8	11.1	0.9	0.9	7.4	7.6
현대로템	2,384.3	2.8	28,050	2.9	8.7	-13.6	49.6	36.2	24.7	1.6	1.5	4.5	6.3
하이룩코리아	223.9	47.2	16,450	-7.1	-6.0	-31.2	-26.9	7.4	6.8	0.6	0.6	8.8	9.0
성광케미	331.8	15.5	11,600	-2.1	0.4	-7.6	16.2	1,025.4	41.6	0.7	0.7	0.1	1.8
태광	312.7	12.4	11,800	-5.6	-0.8	-16.3	-2.1	70.5	34.4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323.8	13.5	11,300	-1.7	0.9	-23.9	-26.4	-46.6	10.5	0.4	0.4	0.2	4.1
두산인프라코어	1,627.8	20.1	7,820	-0.8	-7.8	-20.1	-10.0	5.4	5.0	0.9	0.7	17.1	15.8
HSD엔진	182.9	4.8	5,550	-2.8	21.2	21.7	116.0	-14.6	-13.3	0.8	0.8	-4.7	-6.0
한국항공우주산업	3,099.7	12.5	31,800	0.0	-2.6	-31.2	-33.0	41.7	23.2	2.8	2.5	6.7	11.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22.5	14.4	33,100	1.7	-1.6	26.1	-6.9	87.7	23.6	0.8	0.7	0.9	3.3
LNG에너지원	748.0	9.7	34,000	0.7	-13.4	1.6	-43.1	72.3	17.6	1.5	1.4	2.5	23.0
태웅	201.1	4.8	10,050	-3.4	-7.4	-29.5	-48.1	N/A	N/A	N/A	N/A	N/A	N/A
동성화학	205.1	5.2	7,600	-6.4	-7.2	-2.3	50.5	-19.1	30.2	2.8	2.7	-13.5	9.2
한국카본	314.3	15.3	7,150	-5.3	0.1	7.4	33.4	67.4	21.6	1.0	1.0	1.5	4.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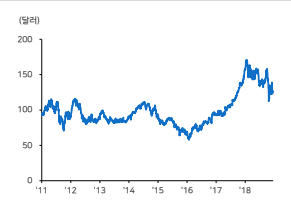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60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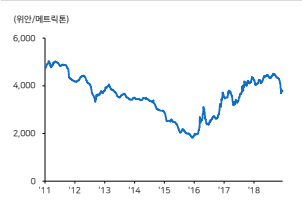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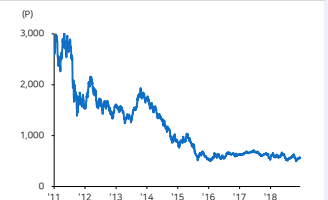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 -0.78 121.55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2000억원 LNG운반선 1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지역 선주로부터 2,096억원(1.86억달러) 규모의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21년 9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12월에만 LNG선 4척을 수주했고, 올해 총 누적 수주금액은 57억달러를 기록함. 이로써 올해 수주목표 82억달러 대비 70%를 달성함. (매일경제)

Gazprom Neft signs up to first small-scale LNG carrier

러시아 Gazprom Neft는 LNG 버커링을 위해 5,800CBM급 소형 LNG선 1척을 싱가포르 Keppel 조선소에 발주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ice-class 1A급으로 건조될 예정이며, 인도는 2020년 말에서 2021년에 예정됨. 또 발해 연안에 건설될 LNG 프로젝트인 Portovaya LNG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TradeWinds)

'임금반납 철회' 현대중공업, 임금협 제시안 전달...노조 거부

현대중공업 20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 28차 교섭에서 새로운 제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회사안의 주요 골자는 '고용 안정'과 '임금반납 철회'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사업부는 가동중단에도 내년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전환배치 추진 및 기본급 20% 반납도 철회했다고 알려졌다. (뉴스1)

美, LNG 입도 선배 활발

미국에서는 현재 LNG를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 그만큼 전세계 LNG 수요가 견고함. 대표적인 거래로 Cheniere는 Sabine Pass 6차 train에서 생산될 LNG 연간 110만톤을 20년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기업인 Petronas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선박뉴스)

中 New Times, 국내 선사 뉴캐슬마스크 7척 수주 확인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은 국내 선사 폴라리스쉬핑, H-Line, 팬오션 등에서 21만DWT급 뉴캐슬마스크 벌크선 7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졌다. 수주 척수는 폴라리스쉬핑 2척, H-Line 3+2척, 팬오션 2척 등으로, 확정분 7척의 계약규모는 총 3.78억달러에 달함. 모두 스크러버 장착 후 Vale에 용선될 예정이다. (선박뉴스)

LNG shipowners set to home in on yard options as year ends

몇몇 LNG 선주들은 LNG선 옵션을 발효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대우조선에 발주했던 Maran Gas가 추가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또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Celsius Tankers, GasLog도 발주가 가능성이 언급됨.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Seatankers도 그 중 하나임. (TradeWinds)

현대건설기계, 부품사업 분리해 '현대코어모션' 설립

현대건설기계는 부품 사업부문을 분리해 '현대코어모션'(가칭)이라는 별도의 사업 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함. 분할방식은 존속회사인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코어모션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임. 분할 기일은 2019년 4월 1일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3월 26일임. (뉴스1)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오일뱅크 상장 3수로 가닥잡나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가 상장계획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상장계획 철회는 결코 아님을 강조하며, 상장시기를 고심한다고'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오일뱅크 상장을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상장 예심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있음. (비즈니스포스트)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 및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2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2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